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법인세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

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A]

01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02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0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㉔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과제 : ‘㉓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㉔고 할 수 있으므로 ㉓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04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0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오르비뷰스 만점의생각

01	02	03	04	05
②	⑤	④	③	③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이라는 상위의 범주 아래에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획득하면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업 비밀은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ICT 산업**은 이런 지식 재산들을 기반으로 창출된다고 합니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지식 재산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이용하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진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과세에 대한 것일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더불어’ 뒤에 있는 내용에 더 집중하면서 읽어야 하지만, 사후적으로 본다면 ‘지식 재산 보호 문제’도 지문 마지막 문단에 다뤄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금은 원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얘긴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의 내용을 보고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죠. 이 문장을 왜 준 건지 다음 문장을 통해 파악해봅시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이윤(수입-제반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디지털세는 이런 법인세가 줄어드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인 거고요. ‘수입-제반 비용’에서 걷는 세금(법인세)이 적어지니까, **제반 비용을 빼지 않고 그냥 수입에 세금(디지털세)**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걸 캐치했다면 다음의 내용들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이 ‘이윤’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기면서 **법인세를 회피**합니다. 그 과정을 쭉 따라가봅시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Q.1 로열티가 뭐죠?

A.1 제반 비용입니다. B국의 자회사에서 로열티를 지출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윤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하는데, '수입-제반 비용'으로 계산되는 이윤을 줄이려면, 수입을 줄이거나 제반 비용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내기 싫어서 수입을 줄인다는 건 상식에도 배치되고, 돈을 쓰는 상황이니까, 로열티를 지출하는 것이 제반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죠.

이 지문 전체를 이해했냐 못했냐의 포인트는, '디지털세와 법인세의 차이', '로열티의 지문 내 의미' 이 둘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B국에서는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제반 비용을 지출하고, 이게 A국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놓치지 않고 읽었다면 거의 다 했습니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그런데 ICT 다국적 기업들이 위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그 해결책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세의 도입이 자국의 산업 주도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마지막 문단 [A]에서는 앞선 세금 문제와는 조금 다른, 지식 재산의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ICT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진 국가들은 지식 재산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지식 재산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지식 재산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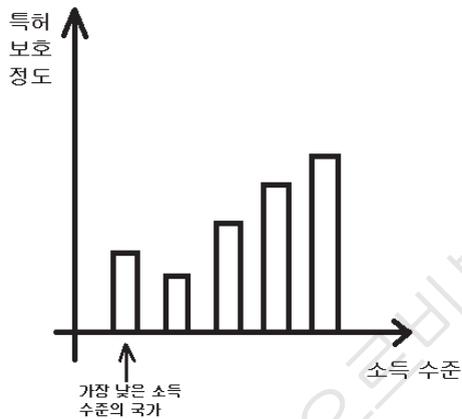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해져도, 강해져도 나름의 단점이 있네요. 보호의 적당한 정도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유인이 저해되는 것을 유인 비용, 접근이 막히는 것을 접근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합한 것이 최소가 될 때가 가장 적절한 지점입니다.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 나라들에서는 국민 소득과 특히 보호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꼴찌보다 조금 더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오히려 꼴찌 수준의 국가보다 특히 보호가 약하다고 하네요.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되겠네요.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 그래프가 전달하는 느낌 정도는 읽으면서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정답 : ②

영업 비밀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는데, 그런 조건이나, 그 조건이 인정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해설

- ①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의 하위 개념입니다.
- ③ '법인세 감소'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 때문에, **해결책**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 ④ **로열티는 제반 비용**이고, 이 제반 비용을 키움으로써 **이윤(수입-제반 비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도 감소하는 것이죠.
- ⑤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를 최적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02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정답 : ⑤

'수입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설

- ① 지식 재산 보호는 '법인세 감소'라는 문제 상황과는 별개의 주제이고, 지문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의 수단도 정확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 ② '수입에 부과'됩니다.
- ③ ICT 산업에 주도적인 국가는 오히려 주도권 유지를 위해 도입에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 ④ 지문에는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만 나왔지, '디지털세'를 줄이는 방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디지털세를 줄이는 방법은 수입 자체를 줄이는 것 외에는 딱히 추론 가능한 것이 없네요.

0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㉗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과제 : ‘㉗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㉗고 할 수 있으므로 ㉗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보기> 해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지문에서는 B국)에서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수입-제반 비용)이 낮다는 가설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가 **제반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 : ④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인다는 것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제반 비용(로열티)'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문의 ㉗이 이뤄지는 과정이죠.**

해설

- ① ‘수입’이 커지는 것은 논점이 아닙니다. ‘이윤’이 적어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 ②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 ③ 수입 대비 제반 비용(로열티)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지출한 제반 비용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게는 수입이 되죠.
- ⑤ 지문에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는 로열티를 지출할 일이 없으니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04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정답 : ③

지식 재산 보호의 수준이 낮아지면 접근 비용은 작아집니다.

해설

- ① 주도적인 국가들은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원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 유인 비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조.
- ②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유인 비용)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심해집니다.
- ④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그랬던 그래프를 다시 참고해보세요.
- ⑤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유인 비용)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접근 비용)는 증가합니다.

05 문맥상 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정답 : ③

B국의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면, A국이 아니라 B국의 이윤을 줄여야 합니다.

해설

- ① 전체적으로 Z사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은, B국이 지출하는 제반 비용**입니다. 따라서 ㉔의 과정에서 로열티(제반 비용)를 많이 지출할수록 A국의 자회사의 수입은 커지겠죠.
- ④ B국의 자회사에서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낮추면서,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최소화하죠.
- ⑤ 로열티를 지출한다는 게, 제반 비용을 늘리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수입-제반비용'으로 계산되는 이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오르비뷰스 만점의생각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개체성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①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②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

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③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자 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⑤밝혀지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체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0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0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03 읽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04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읽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ㄴ.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ㄷ.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ㄹ.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0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구성(構成)한다고
- ② ㉡: 존재(存在)하고
- ③ ㉢: 보유(保有)하고
- ④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생성(生成)된다

01	02	03	04	05	06
③	④	⑤	②	①	④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다소 낯선, '개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동차는 개체지만, 바닷물은 개체가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다음 내용들을 보며 확인해봅시다.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처음에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룰 때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부분들끼리 유사하다고 해도, '개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쌍둥이'나 '바닷물'은 부분들이 매우 유사하지만 '개체'는 아니죠.

그래서 부분들의 **(1)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외부'가 아닌 '부분(내부)들끼리의 (1)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개체의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바닷물은 이러한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2)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Q.1 인과성 얘기 왜 하는 걸까요? 지문이나 문제에 인과성 얘기 나왔나요?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Q.2 개체성 얘기가 지문의 뒷부분과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 특별한 방법론 없이 머리에 때려박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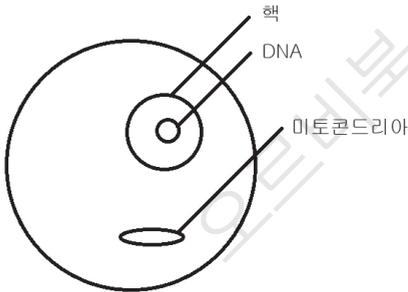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세포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 둘로 구분된다는 것도 중

요하지만, '사람<진핵생물', '박테리아, 고세균<원핵생물'로 머릿속에 정리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엄밀하게 설명하기 위해 <를 사용했지만, 그냥 사람=진핵생물로 정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진핵세포와 원핵세포 모두 '세포'에 포함되므로, 앞선 세포의 특징대로 DNA를 보유하고 복제, 전달시킬 것입니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단순해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생물/기술 지문의 경우 간단히 그림을 그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진핵세포의 세포질

이 정도만 그려두셔도 나중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좀 됩니다. 생물/기술 지문은, 공간 관계 또는 과정의 순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세포 소기관)가 원래 박테리아(원핵생물)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공생발생설'은 원핵생물+원핵생물이 진핵생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앞서 우리가 박테리아=원핵생물로 저장했으니 당연히 두 원핵생물 중 하나는 박테리아의 일종인 '원생미토콘드리아'입니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개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부터 청킹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라고 구분되는 것은 '두 개체'로 바꾸어 읽으셔야 합니다. 즉, '공생'을 한다는 것은 그 각각을 하나의 개체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나온 원핵생물+원핵생물 역시도 개체+개체였고요, 사실 거시독해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이 부분이 무리가 없겠지만, 낯설다면 이 얘기가 다소 근거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읽으며 근거를 더해드리겠습니다.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세포 소기관, 개체x)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개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생명체'는 '하나의 개체'로 바꾸어 읽으셔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였다

는 걸 믿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서 공생(개체와 개체가 하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하나의 개체가 변화하는 과정에 집중했지, 두 개체가 하나의 개체로 합해진다는 주장은 낯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전자 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진핵세포의)세포핵’과는 다른 DNA를 가진다는 **FACT**와, ‘자신(미토콘드리아)만의 리보솜을 가진다는 **FACT**가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였다는 **주장, 즉 공생 발생설**을 뒷받침하게 된 것입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원핵생물)과 원생미토콘드리아(원핵생물), 두 개체가 공생을 하다가 진핵생물이 발생했답니다. 둘 모두 진핵생물과는 달리 ‘핵’이 없습니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진핵생물이라 함은 핵이 있어야 하는데, 두 원핵생물의 사이에서 핵이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핵생물이었던 고세균은 진핵세포가 되었고, 똑같이 원핵생물이었던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개체성)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의 한 종류’는 당연히 원생미토콘드리아(원핵생물, 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이 ‘인과성’을 지닌다는 근거가 여럿 있습니다.

박테리아(원핵생물, 개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a)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b)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c)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d)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한 세포 소기관이 아닌, 개체였던 원생미토콘드리아와 충분한 **인과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a)~(d)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원생미토콘드리아와 현재의 미토콘드리아, 즉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둘을 **동일한 대상**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죠.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미토콘드리아를 개체로 보지 않는 이유’로 청킹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5번 문제(실제 시험지에서는 41번) 두 번째 사례가 공생 관계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조건입니다.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개체성이 있어야 (잃지 않았으므로-두 번 뒤집었습니다)’ ‘공생’입니다. **‘공생’은 ‘서로 다른 두 개체’, ‘서로 다른 두 생명체’의 사이에만 적용되는 말**임을 아셔야 지문 전반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첫 문단에 나온 **‘(1)유기적 상호작용’**이 개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이게 성립한다면 공생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둘 각각이 개체가 아닌, 둘이 하나의 개체로 묶이는 것이죠)**. 또 다시,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은 ‘둘을 공생 관계로 볼 수 없을 만큼’**으로 바꾸어 읽으셔야 합니다. 결국 공생 관계는 **각각이 개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유념해야 문제를 푸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다섯 가지로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1)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한 이유를 서술했지만, 핵심은 ‘복제’와 ‘DNA’입니다. 앞서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가 유기적 상호작용의 예시가 아니었다는 것, 유기적 상호작용은 복제의 과정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느냐/같이 일어나느냐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챙겨두고 문제로 넘어갑시다.

A.1 ‘원생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둘이 강한 인과성을 지님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후에 나온 (a)~(d)가 그러한 인과성의 예시였고요, 이후 문제들에서 이러한 청킹이 실제로 필요했음이 드러납니다.

A.2 뒷부분 해설에서 많이 말했듯이, 공생 관계라는 것은 두 생명체가 각각 개체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미토콘드리아는 개체성을 잃었기에 진핵세포와 공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세포 소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0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 ③

개체성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첫 문단에 제시되고, 그 내용을 계속 끌고 나가서 지문의 다음 내용들과 잇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설

- ① 다양한 견해 없습니다.
- ② 세포의 개념이 핵심이 아닙니다.
- ④ 개체의 유형은 분류된 바가 없습니다.
- ⑤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두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합쳐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했습니다.

0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답 : ④

아까 그림 괜히 그린 것이 아닙니다. 지문에서는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된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 세포질이 아니라 **세포질** ⇨ **미토콘드리아**이기에 틀립니다. 기술/생명 지문에서는 공간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 ① 쌍둥이가 그 예시죠.
- ② 추론이라면 추론이지만, 바닷물이 개체가 아니라고 못 박힌 상황에서 그 이유를 따지자면 (1)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다는 점밖에는 없습니다.
- ③ 지문에 그대로 나온 부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인과성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근거죠.
- ⑤ 고세균은 그 세포질에 핵이 형성되어 전체인 진핵세포와, 원생미토콘드리아는 부분인 미토콘드리아(세포 소기관)와 강한 인과성으로 설명됩니다.

03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답 : ⑤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생발생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원생미토콘드리아라는 ‘개체’였음을 증명하면서 뒤바뀌게 되죠. 따라서 ㉠의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갖는 ‘개체’로서의 특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특징은 ⑤번 밖에 없습니다.

해설

- ①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 ②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죠.
- ③ 내부 공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04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박테리아와의 인과성)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ㄴ.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ㄷ.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ㄹ.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올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②

- ㄱ 인과성의 근거였던 지문의 (a)‘이분 분열’을 통해서만만 들어진다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 ㄴ 인과성의 근거가 되려면 (d)처럼,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아닌 ‘박테리아와 유사한 리보솜’을 지녀야 합니다.
- ㄷ 단순히 수송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b)처럼, 진핵세포막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이어야만 박테리아와 인과성으로 여여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 ㄹ 카디올리핀은 박테리아의 것이므로, (c)처럼 인과성의 근거가 됩니다.

해설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개체)와의 인과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FACT(지문의 (a)~(d))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0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보기> 해설

첫 번째 사례 : ‘복어’와 ‘미생물’은 단순 **공생관계**입니다. 둘은 충분히 강하다고 할 만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둘을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없고, 둘은 각각 독립된 개체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아메바’와 ‘박테리아’ 역시도 **공생관계**입니다. 지문에 나왔듯, 박테리아는 ‘독립된 생명체’이며 하나의 개체입니다. 또한, 박테리아는 여전히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문에서는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나온 바 있었고, 강한 상호작용의 예시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증식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례는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단순 공생 관계로 보아야 맞습니다.

정답 : ①

<보기> 해설에서 말했듯 박테리아는 여전히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며, 둘은 공생관계입니다. 인과성이 원생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를 이어주며, 미토콘드리아를 개체로 볼 수 없기에 공생 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지문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기>와 선지를 접했다면 ① 선지를 보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겼을 가능성이 큼니다.

해설

- ②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지면 미생물은 미토콘드리아처럼 개체성을 잃고, 공생 관계가 아닌 하나의 개체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 ③ 복어가 미생물의 DNA의 증식까지 조절할 정도로 상호작용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각각 개체이며, 공생관계인 것입니다.
- ④ ‘개체성을 잃었다’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아메바가 박테리아의 복제와 증식을 조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문의 미토콘드리아처럼 DNA의 길이가 현저히 짧아지게 됩니다.
- ⑤ 그렇습니다. 사실 ①번하고 ⑤번의 순서를 바꿨으면 정답률이 훨씬 올라갔을 거 같긴 합니다.

0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구성(構成)한다고
- ② ㉡: 존재(存在)하고
- ③ ㉢: 보유(保有)하고
- ④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생성(生成)된다

정답 : ④

'밝혀지다'는,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될 때 사용합니다.

'조명되다'는, 알던 것을 바라볼 때 사용합니다.

오르비북스 만점의생각

2022학년도 수능 분석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

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

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㉔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㉔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0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0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 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0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독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오르비북스 만점의생각

0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쓰기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0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04	05	06	07	08	09
①	③	④	③	②	③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정립-반정립-종합’이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인과’ 지문처럼, 요즘 철학 지문은 어려운 개념을 던져놓고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서술되는 내용들을 통해 학생 스스로 그 개념의 의미를 유추해야 합니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세 범주’는 당연히 ‘정립’, ‘반정립’, ‘종합’일 것이라 생각하며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 뒤의 ‘대립적인 두 범주’는 무엇일까요? ‘정립’과 ‘반정립’이겠죠. ‘반정립’은 ‘정립’에 반하거나, ‘정립’을 부정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통일’은 무엇일까요? 이 둘이 수렴된 ‘종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휘력을 바탕으로, ‘수렴적 상향성’은 대립적인 두 범주(정립-반정립)가 수렴하여 더 높은 것(종합-조화로운 통일)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풀어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립은 ~고, 반정립은 ~고, 종합은 ~다’. 이렇게 서술해 주면 이해하기 편하겠지만, 요즘 지문들은 위의 박스와 같이 서술하여 단순 정의 파악에도 거시독해가 필요합니다. 첫 문단부터 머리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가보죠.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이런 문장은 주어진 그대로 납득해야 했습니다. 논증의 방식도 변증법이고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도 변증법이기에, 그 둘 모두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겠죠.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 이기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즉’으로 연결하여 재진술합니다. ‘이념’ 그 자체와 ‘이념’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방식 모두 변증법적이라네요. 앞 문장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에서 ‘이기에’로 끝났으니, 이는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이념과 현실)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이념과 현실 모두 변증법의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루는 논증도 변증법적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현실이라는 변증법적 ‘대상’을 다루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앞 문장의 얘기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미학은 예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예술을 변증법적 구조(정립-반정립-종합)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많은 내용이 압축된 부분입니다. 첫째로, 미학의 대상은 예술이고(이건 '미학'이라는 어휘를 알면 알 수 있긴 합니다), 둘째로 '예술', '종교', '철학'은 각각이 '절대정신'의 다른 형태입니다. 셋째로 '이념'은 '절대적 진리'이고, 넷째로 '절대정신'은 이러한 '이념(절대적 진리)'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지문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문제를 풀려면 이 네 정보를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렵다고 급하게 넘겼다가는 뒤의 내용 대부분이 머리에 남지 못합니다. 이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인과' 지문과 'PCR' 지문에서 제가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술', '종교', '철학' 이 셋이 다루는 내용은 모두 '절대적 진리(=이념)'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인식하는 형식만 차이를 가지는 것이죠. '내용'과 '형식'을 대비하여 서술하는 것은 다른 기출 지문들에서도 자주 나왔던 것입니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는 당연히 예술·종교·철학이겠죠. 이 세 형태는 바로 앞 문장에서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형식이 '직관·표상·사유'라네요. 직관, 표상, 사유가 뭔지는 뒤에서 알아봅시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직관', '표상', '사유'는 각각이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대응하는 '형식'이면서 동시에 '지성'입니다. 이 중 '직관'만이 물질적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물질적=물리적'이 무엇인지는 2206 '인과' 지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배경지식의 측면이지만, 철학에서는 물질적 대상이나 경험과 관련되지 않을수록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유는 개념(비물리)을 사용해 대상을 파악하는 지성이므로 '순수하다'고 말한 것이죠.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절대정신의 세 형태는 각각이 위의 세 형식과 일대일로 대응되기에,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정신'으로, 종교는 '표상하는 절대정신', 철학은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네요. 예술, 종교, 철학을 구분하는 인식 형식의 차이로 '직관', '표상', '사유'가 제시된 것임을 생각하면 맥락을 통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왜 직관은 외면성을 지니고 표상은 내면성을 가지는지, 왜 예술은 객관적이고 종교는 주관적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철학적 사고가 뛰어난 학생이라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관은 외부의 물질적 대상과 관련되니까 외면성을 갖고, 표상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니까 내면성을 갖는 거겠군’, ‘예술은 직관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실재하는 물리적 대상을 다루므로 객관적인 것이고, 종교는 내면성을 갖는 표상을 인식 형식으로 가지니까 주관적인 거겠군’. 이렇게요. 공부를 하는 여러분은 위와 같이 사고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세요. 그러나 만약 실전에서 이렇게 사고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인식 형식	직관(외면)	표상(내면)	사유
절대정신의 형태	예술(객관)	종교(주관)	철학

이런 표의 형태로 머리에 정리할 수 있다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식의 형식과 절대정신의 형태가 왜 변증법적인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읽고도 ‘예술-종교-철학’이 변증법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을 겁니다. (가)의 나머지 부분에서 한 번 더 이런 추론을 할 기회가 있으니, 같이 살펴 봅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내용 자체는 절대적 진리로 동일하지만, 형식의 차이로 인해 그 내용을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준의 차이’라니까, ‘직관-표상-사유’ 세 형식은 인식하는 내용에 있어 높은 수준도 있고 낮은 수준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나올 정보를 통해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겠죠.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절대적 진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 진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의 형식이나 절대정신의 형태 또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것이겠죠. 이때 앞서 나온 내용대로 사유-표상-직관의 순서로 ‘논리적’이므로, 절대정신은 그 각각의 형식에 대응되는 철학-종교-예술의 순서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 것이라 애깁니다. 어쨌든 최고는 철학이고, 예술은 과거에만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네요. 철학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절대정신이고, 예술은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이라는 결론을 ‘그런갑다~’한 채 (나)를 읽어봅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정립-반정립)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정립과 반정립이 ‘종합’된다면, 그 둘 중 하나만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각각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사라져서는 안 된답니다. 오히려 그 둘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더 상위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합이라네요.

이게 (가)에 나왔던 '조화로운 통일'이자 '수렴적 상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립과 반정립 중 하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의 속성이 모두 살아 남는다는 점에서 '조화로운 통일'이고, 이 둘이 조화되어 더 높은 것이 된다는 것이 '수렴적 상향성'인 것이죠. (가) 지문이 헤겔의 변증법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압축적인 글이었다면, (나) 지문은 이제 그 개념을 바탕으로 비판적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 비판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가)와 (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나)의 첫 문단인 거예요. 만약 이 문단을 '아, (가)에 나왔던 '수렴적 상향성'이란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거네'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종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수렴적 상향성'은 변증법의 탁월한 지점 중 하나지만, 헤겔이 미학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원지 한 번 봅시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앞 페이지의 표 기억하시죠? 변증법의 '정립-반정립-종합' 구조에 맞게 '직관-표상-사유', '예술-종교-철학'을 구성한 헤겔의 '전략'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역시 (가)의 개념을 짧게 요약한 문장입니다. 이제 (나)의 글쓰이는 헤겔의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려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지 이해하셨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헤겔의 설명은 (나)의 초반에서 언급했던 '수렴적 상향성(특히 수렴성)'이라는 종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직관-표상-사유로 갈수록 직관이라는 '정립'의 외면성이 점점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예술-종교-철학으로 갈수록 예술이라는 '정립'의 객관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외면성과 객관성의 본질인 감각적 지각성이 사라지는 것은 '법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것이기에, 유기적 조화를 통해 수렴적 상향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헤겔이 설명하는 예술에서 철학까지의 과정은 진정한 '종합'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면성과 주관성의 일방적 승리에 불과한 것처럼도 보인다는 거죠.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앞 문단에서 드러난 오류 없이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철학의 주관성이 다시 객관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일방적 승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재객관화가 없다면, 예술의 객관성과 감각적 지각성이 소멸되었을 뿐, 진정한 '종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헤겔은 예술이 과거에나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던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이라고 폄하했는데, (나)의 글쓴이는 오히려 예술이 철학의 다음 단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의 뉘앙스만 잘 읽고, '(가)는 예술은 허접하다고 봤고 (나)는 예술에 뭔가 더 가치를 두었네~' 정도로만 생각했어도 문제의 많은 선지들이 쉽게 걸러집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고지만, 실전에서 너무 정보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빙빙 도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헤겔은 예술 작품이 '직관'의 형식을 가진다고 했지만, 실제의 많은 예술들은 '사유'의 형식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가) 마지막 문단의 논리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사유'라는 순수하고 논리적인 형식으로만 설명된다는 것은 곧 그만큼 예술이라는 절대정신이 높은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사실 앞에서 얘기한 뉘앙스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줄,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헤겔의 '예술-종교-철학' 구조가 변증법이라는 철학적 방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근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막 문단이 <보기>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됩니다.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예술은 헤겔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단계의 절대정신일 수 있

다.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0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 ①

특정한 철학적 방법(변증법)이 나타나 있고, 그것에 기반한 체계(예술·종교·철학·직관·표상·사유)로 예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낮게 나타났던 예술의 위상이 (나)에서는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그 위상이 높게 제시되었지요.

해설

- ② 특정한 철학적 방법(=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없습니다. (나)도 변증법이라는 방법 자체를 비판하진 않았죠.
- ③ 특정한 철학적 방법(=변증법)의 ‘한계’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 ④ 예술 장르를 유형화하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 ⑤ 특정한 철학적 방법(=변증법) 자체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0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정답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예술·종교·철학)는 각각이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입니다. 이때 ‘직관’, ‘표상’, ‘사유’는 인식 형식이면서 지성이죠. 그럼 도대체 뭘 인식하는 걸까요?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라는 내용을 통해, 그 대상이 ‘절대적 진리’이면서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세 부분으로 쪼개서 봅시다. ‘(a)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 (b)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 (c)인식하는 대상이다.’ 이때, (a)≠(c)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a)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	(b) 지성의 세 가지 형식	(c)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
예술·종교·철학	직관·표상·사유	절대적 진리=이념

사실은,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의 도구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므로, 지성이 인식하는 대상이 절대정신이라는 설명은 딱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③을 고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설

- ① ‘동일성’과 ‘상이성’이라는 단어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지 파악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복합문’ 지문에서 ‘평등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의 정답 선지와 비슷한 구조예요.
- 여기서 인식 내용은 ‘이념=절대적 진리’로 같으므로 ‘**동일성**’을 갖지만, 인식 형식은 ‘직관·표상·사유’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상이성**’을 가집니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사·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라는 지문의 내용을 통해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④ (가)의 1문단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 ⑤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된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종교·철학의 단계적 등급을 매겼습니다.

0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 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정답 : ④

예술의 ‘개념’을 다루는 것은 ‘사유’가 맞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도 사유가 맞죠. 그러나, 그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하는 것은 머릿속(내면)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거니까, ‘직관’이 아닌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관’은 주어진 외부의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 형식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 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할 것입니다.

지문에서 '직관', '표상', '사유'가 무엇인지 개념적인 설명은 해주었지만, 정작 이해하기 쉬운 예시는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예시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항을 풀려면, 독해력은 기본이고 이해력과 추론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과거의 철학 지문 기출들을 모아서 꼭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에 없는 지문으로는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유비 논증' 지문을 추천드립니다.

0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정립-반정립-종합과 ㉡예술-종교-철학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정답 : ③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앞의 두 범주가 조화롭게 통일되지만, ㉡에서는 예술에서 철학으로 갈수록 첫 번째 범주인 예술의 특성이 점차 지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줄,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이죠.

해설

- ① ㉠에서는 정립과 반정립이 대립하고, ㉡에서는 객관성을 지니는 예술과 주관성을 지니는 종교가 대립합니다.
- ② 앞의 두 범주가 최상의 마지막 범주로 향하는 '상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두 번째 범주와 마지막 범주 사이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④ ㉠이라는 변증법의 구조는 조화로운 통일을 통해 '수렴적 상향성'을 지니는 것과 달리, ㉡에서는 예술의 특성이 점차 지워지기에 '조화로운 통일'이라고 볼 수 없었죠.
- ⑤ 제가 지문 해설을 할 때 거시독해했던 것을 이 선지에서 직접적으로 정리해 주었네요. 선택률은 낮았으나, 거시독해의 필요성을 먼저 알려준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㉗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쓰기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보기> 해설

헤겔이 말한 예시는, 지적인 수준이 예술 작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성적 통찰'은 '사유'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이는 예술이 직관하는 절대정신이며, 지성이 미발달된 시기에나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초보적인 것이라는 헤겔 스스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보기>를 잘 읽고 풀면 되지만, 사실 (나) 마지막 문단이 정말 큰 힌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예술 작품

들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기에, 예술은 헤겔이 평가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절대정신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죠.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을 구체적으로 구성한 텍스트예요.

정답 : ②

헤겔의 이론에서는,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정신'이고, 이때의 '직관'은 주어진 외부의 실재하는 물리적 대상만을 인식하는 '외면적' 형식입니다. 그런데, 예술이 사유를 통해만 들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내면성'을 갖게 되죠. 따라서, 헤겔의 이론에서는 단순히 외면성에만 대응하던 예술이, 헤겔 스스로 말한 실제 사례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②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설

- ① 범주들을 중화한다는 것은 앞의 두 범주의 특성을 열거 지게 만든다는 것인데, 지문과 <보기>에서 언급된 현실의 예술에서는 그러한 중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③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 ④ 객관성도 갖고, 주관성도 갖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외부의 질료와 작품을 보는 것은 '직관'으로 객관성을 갖고, '사유'를 매개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주관성도 갖기 때문이죠.
- ⑤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머나먼 과거뿐이었던 헤겔의 이론과 달리, (나)는 오히려 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므로 ⑤번 선지는 바로 걸러야 할 것 같습니다.

0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정답 : ㉢

해설

- ① '지니다'가 추상적인 맥락을 갖는 것과 달리 '소지하다'는 물리적인 것을 실제로 가질 때 쓰는 어휘입니다. 비문학 어휘 문제에 '소지하다'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 ⑤ '결성되다'는 조직이나 단체가 형성됨을 뜻하며, 지문의 개념적인 관계에서의 맥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르비박스 만점의생각

[4~9] 변증법 지문

조경민의 Comment

(가) 지문은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임에도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변증법', '범주', '절대정신' 등의 개념을 거시독해를 통해 끊임없이 붙여 읽으며 학생 스스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만점의 생각』에서 가르치는 독해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을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지문은 다소 생소한 구성과 문체이지만, (가)를 비판적으로 독해한다는 점에서 (가)와 (나) 사이의 유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와 (나) 지문을 한 번에 읽으며, 이어지는 포인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선지의 난이도 역시 매우 높았습니다. 아마 실전에서 모든 선지를 엄밀히 판단하기는 힘들었을 듯합니다. 이런 지문을 공부할 때는, 100% 이상의 이해를 추구하며 지문의 내용을 치열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되, 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실전에서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수험생들의 코멘트

문송(서울시립대 21학번, 2022수능 언매 95점)

저는 시험장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납득하고 지나가지 못했고, 일단 넘어가서 (나)의 첫 문단을 읽고 그제서야 수렴적 상향성이 무엇인지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기> 문제의 경우, 2022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자유의지 지문 13번 보기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한 입장의 주장에 (9월 모의고사 문제는 실험이긴 합니다.) 다른 입장이 반박을 하는 구조이고, 반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답을 찾는 과정 또한 거의 같다고 느껴집니다. 답을 찾은 과정이 이 책에 들어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해설을 보기 전에는 '그냥 반박자가 합법한 말이 이미 지문에 나와있는데 그걸 그냥 고르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사고한 것 같습니다.

김연준(20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솔직히 (가) 지문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지만, 대신 (나) 지문은 특유의 2022 6평식 베카리아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이해하기 조금 쉽게 서술된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가) 지문 특유의 현학적인 어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가) 지문이 이번 수능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앞의 내용을 다시 기억해내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 읽혔던 예전 지문들과 달리, 일부러 현학적인 어투와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여 그러한 이해를 방해하여 독자의 이해가 궁극적으로 거시독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은 전년도 수능부터 이어져 왔던 경향이지만 이번 수능에서 제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시독해를 통해 이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 풀이에서 꽤나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지

문의 두 번째 문단까지 어떻게든 거시독해를 하면서 끌고 왔다면 세 번째 문단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무난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5번과 6번 문제를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저는 거시독해가 매우 잘 통했던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가)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매우 빠르게 읽어낼 수 있었는데, 다만 6번 문제에서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 선지가 좀 뱅뱅 꼬아놓은 느낌이 있어서 선볼리 손가락을 걸지 못하고 다섯 선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느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 지문은 교수가 헤겔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논설문의 형태를 띠는 듯한데, (가) 지문보다는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가) 지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또한 (나) 지문 내에서도 거시독해를 적절히 활용했다면 (가) 지문과 비슷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만약 마지막 문단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면 8번 보기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컸을 듯합니다. 4, 7, 9번 문제는 무난해서(사실 세트 내에서 무난한 거지 4번 9번은 기출 중에서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긴 합니다. 7번은 진짜 쉽구요.) 8번 보기 문제가 정답률이 좀 낮은데, 패닉한 수험생들이 결국 마지막 문단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비주얼만 보고 날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보기 읽자마자 바로 답을 잡고 넘어가서 쉽진 않지만 매우 깔끔한 문제라고 시험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지문의 경향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형식 또한 베카리아 세트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세트라 생각합니다. 6,9 평과의 연계성이 드러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가) 지문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을 (나) 지문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을 듯합니다.

오르비북스 만점의성